

나눔터

2003·가을

제45호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어 주십시오.

2003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 2 ● 된다! 상담소
- 4 ● 여기는 상담실 | 어린이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며
- 8 ● 열림터 이야기 | 「소생하는 영혼」을 읽고, 나를 생각한다
- 10 ● 나눔터 기획 I | 법적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소외, 피해자의 권리
- 16 ● 나눔터 기획 II |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란
- 20 ● 나눔터 학술 |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
- 26 ● 성문화 칼럼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의 실천적 역할
- 34 ● men's work
- 36 ● 나눔터 인터뷰 | 증인보호제도 시행하는 울산지검
- 42 ● 이웃집 놀러가기 I |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 44 ● 이웃집 놀러가기 II |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든든한 벗 - 시드니 Dymrna House
- 47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이라크에 다녀와서
- 49 ● 미리보는 상담소
- 50 ● 성폭력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 2003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 52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놓여졌던,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과 “남성됨을 얼마나 요구받아왔는지”에 대한 설문판 그림입니다. (9/26-27) (☎26쪽)

신규회원 환영회

지난 9월, 신규회원과 오랫동안 상담소와 함께 해온 회원 20여분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상담소에 대한 공통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회원소모임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9/30)



호주제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호주제 폐지 법안의 정기 국회통과를 앞두고,



유림과 보수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세어지는 요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간절한

바람과 주장을 모아내는 자리가 두 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 한마당’-여의도 한강시민공원(9/20) / ‘호주제 철폐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축제’-서울시청 앞(10/3).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강요된 ‘분홍색’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전복적으로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 온통 분홍장갑, 분홍 포크레인, 분홍색 물결이었습니다.

“근친 피해자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호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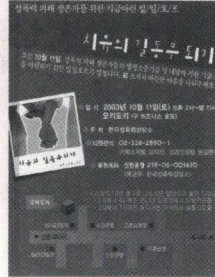
완전폐지!”

“가해자가 물려준 성은 싫어!”

기금마련 일일호프 - 치유의 길동무 되기

성폭력피해 생존자를 위한 기금마련 일일호프

가 시청역 오키도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 수익금 전액은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의 지원과 치유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일일호프에 오셔서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모두의 지혜, 용기, 그리고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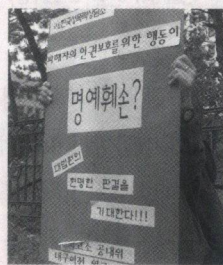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20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 10월 6일부터 3

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늦은 시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40명의 선생님들이 열의를 갖고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게 될 20기 선생님들의 활동 기대해 주세요.(10/6-24)



역고소 대구특위-대법원앞 1인시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대구여성의 전화 관련 재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고, 피해자를 지

원하는 공익 활동을 저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고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의 명예보다 가해자의 명예가 우선되는 부당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9/1-현재)





어린이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며

_ 본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들어가며

2003년 상반기 어린이성폭력피해관련 기사들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후, 어린이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한 번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지원의 한계에 대한 목소리와 지원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관련된 각 기관에서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 방침의 내용은 비록 어린이성폭력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호에서는 상담현장에서 어린이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보강된 지원체계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성폭력피해 실태를 본 상담소의 상담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2000년 439건(전체 2,873건), 2001년 622건(전체 2,869건), 2002년 672건(전체 2,9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성폭력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대응능력 및 인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사건을 지원하는 상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피해사실 인정

어린이성폭력피해자가 겪게 되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조기발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고려하며 아이의 심리적 치유 등을 감당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 상담원에게는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보호자로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2. 주체가 아닌 피해자

어린이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는 한계는 피해자와의 직접상담에 대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사건파악이나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피해상태를 피해당사자가 아닌 부모로부터 전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는 본 사건의 주체가 아닌 소외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가져온다. 일단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단지 부모님들의 바램만이 존재한다. 물론 부정적인 진행이라 할 수는 없지만, 상담원의 입장에서 과연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자녀의 성폭력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피해자부모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나 기술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심리적 지지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만 14세 미만 가해자 처벌의 어려움

상담현장에서 느끼는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형사소추제의 대상인 만 14세 미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한계이다.

지난 8월 C양의 아버지는 이제 겨우 만 4세 된 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중1년 남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에게 확인하니 놀이터와 피·가해자 집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한 C양의 아버지는 평소 호형호제하던 가해학생의 부모를 만나 사실을 알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던 가해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기 시작했다. 이유인즉 가해 당시 만 13세였던 가해자는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날 이후, C양의 아버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라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 가해자에 의한 위와같은 사례는 최근 상담현장에서 그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을 기대하는 피해자측에게 법적현실의 한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부모의 유책성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가해자부모의 인식부족으로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확보의 어려움

상황 판단력, 육하원칙에 맞는 기억력, 사건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진술 과정 중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상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여 수사관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뿐만 아니라 증언에 대한 제한적 신뢰로 신빙성문제가 늘 논란거리로 남게 된다.

정확한 피해진술은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나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발달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특성상 이 부분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린이피해자들이 소송과정에서 겪는 반복 진술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없는 현 상황은 피해 어린이에게 심리적 상처를, 이를 지켜보는 부모에게 분노와 안타까움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의 심정을 알면서도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담원들을 안타깝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접근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지난 5월 13일 여성부에서는 아동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증언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했고, 이에 따른 경찰청의 활용방침이 발표되었다.

2003년 6월 1일부터 3개월 간 녹화진술을 시범 운영하여 10월부터는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관련단체 시설이나 경찰서 여성상담실에서 녹화, 수사 자료에 첨부해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녹화 시에는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보호자, 아동심리전문가, 자문변호사 등이 동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연이어 이 부분에 대

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03년 6월 9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여부는 보편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반적인 증거법칙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검찰은 전담검사가 초기 경찰수사를 직접 지휘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아동성폭행피해자 조사지침’을 마련, 6월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발표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전국 55개 지청에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전담검사를 지정, 경찰지휘 및 송치 후 사건처리를 전담토록 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고 진술조서에 피해 진술 녹화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며, 조사과정에 성폭력상담전문가와 아동심리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진술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소위 전문가들의 ‘전문성’의 문제인데, 관련기관(경·검찰, 성폭력상담소, 아동심리전문가 등)에서 생각하는 전문가의 자질과 기준이 달라 최초 진술을 녹화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전문가 섭외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와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재차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피해자를 위한 대체 방안이 또다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이어 2004년도에는 어린이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총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춘 국립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경찰, 검찰의 시도와 정부의 이후 계획들은 상담현장에서 사건해결의 현실적 벽에 부딪히고 있는 지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기존 형사사법체계를 와해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편의를 위한 과도한 접근’이라는 일부 인식을 접하며 우리사회의 법적 공정성이라는 것이 기실은, 얼마나 가해자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었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우대조치’로 위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일부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지원/해결 시스템이 결코 ‘우대’가 아닌 당위적 ‘기본’ 조치임을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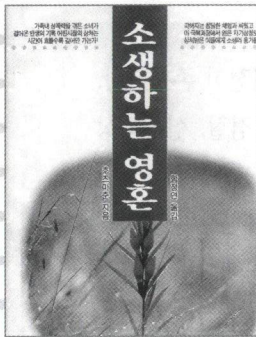
그리고, 경·검찰·정부의 이후 조치들이 어린이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선 개별피해자, 개별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발생과 해결을 위한 구조적 관점을 견지해야 함을 말하고 싶다.



「소생하는 영혼」을 읽고, 나를 생각한다

_ 이슬기(가명)

슬기님은 자신에게 충분히 힘들었을 시간은 이제내고, 영림터 동생들에게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돌려주셨던 참으로 괜찮은 그녀입니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읽게 되었다. 소생... 죽어가다가 되살아남...

조금씩 책을 읽어가며 나의 영혼도 죽어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살아날 수 있을까? 아직은 나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다. 살아나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하지만 그건 나만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나의 영혼을 치유받지 못한 다는 사실을...

어떠한 일을 보게되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며 머리로만 이해했지 가슴으로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나면 달라진다. 세상에 못나고 잘난 것을 매기는 기준은 애매하다지만 내가 보는 세상에서의 나보다 잘난 것들만 보고 있음에 항상 삶의 회의를 느끼곤 했다.

때때로 마음먹어보기도 했다. 지금은 한순간일 뿐이라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있던 게 없어지진 않았다. 일종의 잠복기를 통해 모든 것이 잊혀졌다 생각날 뿐... 언젠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기억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지우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도 기억 속에 찾아보면 가슴 한구석에 아주 조그마하지만 내가 떠올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며, 어떤 일이건 스스로 풀어야 하는걸,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내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언젠가는 해결책이 나오지만 그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것들이고 그것을 다음이란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해결이란 더욱 멀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언젠가는 나도 글쓴이처럼 지금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으리라... 말했듯이 잊혀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떠올렸을 때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하게 될 수 있으리라.

내가 처해있는 시점은 이제 막 맞서보려 눈을 뜨려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눈을 뜨고 나면 펼쳐질 모든 것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싸워보리라. 이겨낼 것이다. 아직까지 나 혼자로는 버겁지만 주위에 나를 위해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눈 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도움의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지만 다음은 나의 정신력으로 버텨볼 것이다.

나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다.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같이 동요되어 더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나 혼자만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피하려고만 했지 다가가 보려고는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나만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그 누구의 손길도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혼자 해결해보려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며 내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도망가려 했던 것 같다. 한순간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랬다. 하지만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랬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자기의 잘못이라 자책할 필요도 없다고... 사실이었지만 가슴이 저렸다.

이제 눈물 따위는 흘리지 않을 것이다. 가슴 저릴 아픔도 느끼고 싶지 않다. 많은 생각들에 당당해지진 못했고 여전히 힘들지만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보여주고 싶다. 세상에 나란 사람도 있다고...

조금씩 나의 자리를 되찾고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평생이 걸릴 수도, 단시간 내에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해내리라 보여주고 싶다. 세상에 보여주고 나 자신을 떳떳이 당당하게 내세우고 싶다. 나를 걱정해주고 도와줬던 친구들이 고맙다. 그 고마움을 나의 노력으로 인해 달라진 모습으로 보답할 것이다.





법적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소외, 피해자의 권리

— 본 상담소 법정지원팀

법적과정을 밟고 있는 피해자들의 많은 경우가 수사,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와 법적과정으로부터의 소외감을 호소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현행 제도상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앞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 등을 제안하는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나무님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와 1·2심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직업과 피해당시 품행, 저항여부와 저항의 정도, 가해자와의 사전관계 등을 질문받고 의심받으며 긴 과정을 겪어내었습니다.

나무님은 재판에서 '승소' 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긴 하였으나, '가해자에게 느낀 분노와는 또 다르게, 법적 과정에서 느낀 분노와 억울함은 특정한 사람에게 향해 질 수도 없다' 며 힘든 심정을 말합니다.

인터뷰는 형사절차상 겪은 어려움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아래의 내용은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명예를 해치는 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피해자로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 등 형사절차 중에서도 공판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사절차로부터의 소외

공판검사를 만나볼 수가 없었어,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검사가 내 변호사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따로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길 들었어, 그런데



▲호주 SW Tenants Advice의 Leaflet을 응용, 디자인 일부 변경

내 변호사라면 어떻게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재판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인터넷에 익숙하지도 않고 잘 몰라, 나보다 나이도 많고,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인터넷으로 재판정보를 찾아보라는 말만 하고... 내가 바보같아서 그런가, 다른 피해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있고 자기 재판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 알아보는데 나만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좀 더 똑똑했다라면 계속 신경쓰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것저것 진정서도 넣고 단체 도움도 받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기도 해, 내가 좀 더 정신차리고 재판마다 쫓아다니면서 신경을 썼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해,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경향이 없었어, 정신없이 일도 해야되고, 그 생각만 해도 후들거리는데... 제대로 모든 과정을 신경쓰고 대비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그 가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재판이 왜 취소가 된 건지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 본인이 먼저 신경써야 하겠지만, 담당검사가 피해자한테 이런걸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전화하면 대답이라도 해줘야 하잖아...

법원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불친절하게 구는데다가, 담당검사 전화번호도 알아내기 어렵고, 전화 연결되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라니, 인터넷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아는 후배한테 부탁해서 보니깐 그런건 나와있지도 않아, 거기 그런 게 나와있어?

모욕적 신문금지 관련

그놈, 가해자 변호사가 부모님 직업까지 들먹이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검사는, 내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거야, 판사까지 내 행실을 운운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대는데, 검사는 암말도 안하는 거야, 법정엔 내편은 하나도 없었어, 진짜 하나도...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꺾꺾 숨이 넘어가고 눈동자가 조절이 안되고 뒤집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야... 1심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하진 않았어, 근데 2심 때 판사들은... 가해자 변호사는 그렇다고 쳐, 가해자랑 한통 속이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는데, 판사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거는 응서가 안돼, 내 편이라는 검사도 그렇고, 가해자 편인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들까지 다 똑같애, 다 똑같은 남자야...

진술할 기회의 보장 관련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고, '네-아니오' 라고 짧게 대답하는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막상 증인으로 법정에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많은 거야, '네/아니오'로는 설명 안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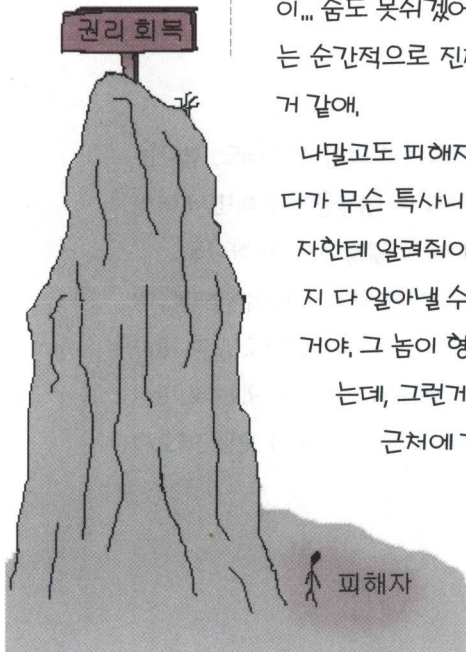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도 먼저 충분히 애길 들어보는 게 맞는 일이잖아, 근데 나는 피해자인데 그렇게 몰아붙이듯이 짧게 대답하라고 하는 게 정말... 도무지 말이 안돼,

증언 마치고 나와서 앉아있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며칠 동안 얼굴에서 열이 안내렸어, 슬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계속 빨갛고, 생각하다 안되서 오죽했으면 '그래 그 사람들도 일도 많고 바빴겠지...' 하고 이해해보려고도 했어,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건 아니야, 그렇게 억울한 사람 말을 막는건 아니지, 말을 못하게 해... 자기네들도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추궁 받으면서 당해 보라고 해,

가해자의 신병에 관한 통지 필요

가해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전화벨이 울리거나 길 가다가도 비슷한 사람 보면 정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심장이... 숨도 못쉬겠어, 지나치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 지나칠 때는 순간적으로 진짜, 딱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거야,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 같애,

나말고도 피해자들은 많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 가해자가 구속이 돼서 형을 살다가 무슨 특사나 하면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당연히 피해자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애, 그 사람은 조금만 건너 건너면 내가 뭐하고 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을텐데, 나는 모르는 상태로 앉아서 계속 불안해 하게 되는 거야, 그 놈이 형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애길 들었는데, 그렇게 너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출근할 때나 퇴근해서 집 근처에 가까이 가면 심장이 빨라져서 숨이 제대로 안쉬어져,



▲그림 : 나눔터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형사든, 검사든, 판사한테든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 같은건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게 되든 안되든 좋아, 적어도 얘기는 해 줘야 하는 거잖아,

미란다 원칙인가 가해자 체포할 때 해야 하는게 있잖아, 가해자한테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피해자는, 피해자는 훨씬 더 억울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가명수사의 필요성

공탁통지서라는게 날라왔어, 우리집에서 엄마는 모르고 있었거든, 나이도 많으셔서 내가 그런일 당하고 재판하고 있는거 알았으면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집에 들어오는데 마루에 법원에서 편지가 와있는데... 다행히 엄마가 보진 못했지만,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나무님은 현행 제도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 법적 과정을 겪을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현행 제도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잘 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수치심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몫도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것입니다.

나무님이 겪은 어려움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은 피해자 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 상황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내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혹시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쉽지 않은 얘기들을 꺼내고 인용을 허락해준 나무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위에 인용된 인터뷰 내용 중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명예를 해치는 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피해자로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현행법상 이미 피해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임에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자의 신병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의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에 '피고인들에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 통지'라는 조항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입법취지 자체가 피해자가 아닌 범죄 신고자 보호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적용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명수사의 필요성,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등은 현재 보장받고 있지 못하나 그 필요성이 절실하고, 앞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권리들입니다.

법정지원팀에서는 공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형사절차, 특히 공판 절차상의 2차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침해되는 피해자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미 보장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 중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형사사법절차는 피해자로부터 출발되지만, 현행법 하에서의 피해자는 단지 증인 혹은 참고인 등 절차의 '대상'으로서, 소극적인 지위만을 가지고 있고,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는데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소추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고지받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체포여부와 수사의 진척상황, 가해자의 구속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경과 및 절차참여, 피해자의 권리 고지 등의 안내절차

형사사법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진행경과의 고지 및 절차참여를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권리·배상명령절차,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관 등의 고지의무의 입법화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형사절차의 진행경과의 고지 및 형사절차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피고발자에 대한 체포, 법관면전예의 최초출두, 재판절차 계속중의 석방 등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고 있으며, 공소취하, 재판절차 계속 중의 피고발자의 석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 일정한 사항에 관해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재판과 관련된 관계서류 및 기록에 대한 접근권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장 크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정보접근 차단'의 문제입니다.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한 정보접근이 가능하

나 피해자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데, 이로 인해 극단적으로는 재판경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경과를 파악하고 당시 필요한 변론이나 증거들을 구비하려고 해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무력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재판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송계속 중인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여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등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통지받을 권리

소송 진행 중 이거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보복의 두려움, 가해자 출소 후 재피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위협감 등은 피해자의 일상 곳곳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2차 피해상황에 대한 보완장치로 가해자의 가석방, 형집행정지, 형기만료 등의 가해자 신변에 관한 변동상황이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가석방 집행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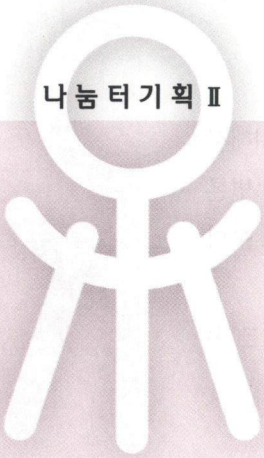
피해자들은 피해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가 가해자로부터 무시되고 박탈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다시 없앨 수는 없지만, 피해임을 인정받고 피해로 인해 훼손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것은 '더 이상 양보될 수 없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소송을 통한 제한적 권리만이 인정되는 현행 권리구제 시스템은 피해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긴급하게, 좀 더 안전하게, 더 수월하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건해결을 위한 지원·중재절차, 공동체 안에서의 해결 장치 등 소송 이외의 사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통로를 더욱 다양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소송을 결심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현행 법률제도의 맹점들이 보완되고 피해자로서의 지위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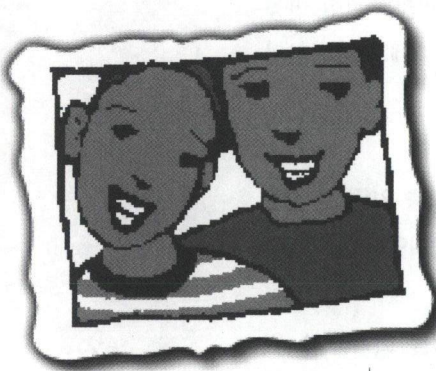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란

본 상담소 성과 인권팀 _ 권김현영

피해의식이라는 오래된 문제와 가해자 중심주의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는 익숙한 말이 있다. 이 익숙한 관용어구는 보통 여성들이 (혹은 여성들과 같이 은폐되어 있지만 명백한 차별을 받는 집단들이)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는 말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과민한 것은 아닌지, 자신이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런데 보통 차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차별 당하는 집단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이댄다. 밤에 늦게 돌아다녔다든지, 치마를 너무 짧게 입었다든지, 순결하지 않았다든지 등 차별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거나 혹은 차별을 스스로 원했다는 식의 이유들 말이다. 그러나 차별 받는 집단들은 차별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차별 받는 이유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차별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내가 혹시 차별 당할만한 짓을 하지는 않았나? 내가 충분히 싫다고 말했는가? 라는 식의 자책감은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적 고통 중에서도 오래되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겪는 차별과 폭력이 성별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발화하게 될 때 흔히 “과민하거나(그래서 남성들의 사회/조직생활에 걸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상상력이 풍부하거나(결벽증이 있는 공주병 환자거나)” 혹은 “여자답지 않다”(페미니스트거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거나) 등등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오래된 놀림과 비난들, 여기에서부터 가해자

중심주의가 시작된다. 그 피해가 오래된 것일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오래된 것일수록, 피해와 피해의식을 구분하고 지배적/남성중심적인 탈을 쓴 '객관성'과 '이성'은 더욱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가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와 피해의식을 구분하여,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이라는 이분법안에 여성들을 가두는 동시에 가해자들이 저지른 가해순간의 주관적인 판단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리고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는 말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을 안겨 준다. 한 가지는 더 더욱 피해자가 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입을 다물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를 가장하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자책감들과 싸우면서, 자신이 이성적이며 객관적이라는 증명을 해내야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입을 다물어라-라는 것이 바로 가해자 중심주의가 가지는 지나친 피해의식에 숨어있는 경고인 것이다.

가해자 중심주의에서의 피해자 '되기'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이 철저하게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비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법적·심리적 지지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 자체에만 집중해서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만큼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 범죄가 없다는 현실을 쉽게 무시하고 말이다.

사실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그동안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해석되고 설명되고 처리되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폭력 범주는 유일하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비난받는 범죄이다. 또한 성폭력 범주는 거의 유일하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변을 밝히려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범죄이다. 발생율이 세계 2위인데도 신고율이 6%에 머물러 있고, 피해자가 겪는 이후 후유증에 대한 사회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현재의 상태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보다는 은폐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만 해도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쉽게 자신의 가해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적으로) 결백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가족과 공동체는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주체로서의 피해자라는 위치보다는 성적으로 무지한 피해자라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가해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원하는 피해자가 되는 순

간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개념 규정한다는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가해자 중심주의의 무서운 점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우선적으로 남성의 말을 믿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그대로 보여준다는데 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역전이다. 예를 들어, 화간이라고 하는 가해자의 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 당사자 중 한 명이 강간이라고 한다면 화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보다 강한 객관성을 지닌 해석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혹자는 만약 누가 보기에든 명백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를 해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하되, 변치 않는 고정된 존재도 전능한 존재도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을 규정한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길-회피나 부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의 피해자 위치가 가지는 딜레마가 피해자로서 자신을 정체화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갈등한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지자들은 단지 성폭력 개념규정을 피해자만이 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규정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상처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생존자를 돕기 위해 지원자가 가져야할 위치


피해자 중심의 사건지원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사건지원의 전 과정에서 피

해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의 수동적이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생존자가 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분은 특히 지원자들이 생존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부분이다. 지원자들은 생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위치가 아니라 생존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안내자의 위치에서 만나야 한다. 그러나 이런 위치에 대해 생존자와 지원자 모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생존자가 만약 지원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지원자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신뢰관계가 깨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지원자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진공상태에 놓여있지 않는 한 생존자가 원하는 그대로의 해결을 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가지게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안전한 것들만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지원자의 역할은 아니다.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를 깨는 것 역시 지원자의 목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전달하고, 현재 이미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같이 해결을 모색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반대로 생존자가 지원자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어려움도 있다. 피해자 심리의 특징 중 하나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고 분노를 내면화하는데 있다. 이 내면화된 분노의 대상은 흔히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때로 우울증과 죄책감, 무력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자신의 무력함과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자 역시 무력하게 만들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전도하려 하는 것이다. 지원자로서 생존자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 본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생존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하는 극복의 행동들이다. 이럴 때 지원자는 자기 자신 혹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분노는 상황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생존자의 우울증과 무력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을 맺으며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피해 생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싸우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도 말이다. 성폭력 피해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침범하고, “나”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침범하는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는 지지자를 만나는 기쁨으로, 지원자는 자기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생존자를 만날 때, 그리고 그 만남이 개인성과 관계성을 복원하는 과정이 될 때, 우리는 성폭력 피해의 극복이라는 오랜 여정에서 치유의 희망을 발견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연구원, 여성학 강사_김지혜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 본 원고는 형사정책연구원이 이동진 연구원과 본 상담소 김지혜 연구원이 공동수행한 (형사미성년성범죄 기해자 선도방안 연구)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만 12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떠한 형벌이나 보호처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의 연령이 어려서 이러한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거나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힘으로 인해 향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의 심각성이나 폭력성, 상습적 가해, 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의 심각성 등의 문제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과 적절한 사후대책의 필요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이들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어떠한 연구나 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에 의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 12세 미만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999년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의 상담 중 가해자의 연령이 어린이, 유아인 총 225건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중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의거,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소년법에 의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의 일반적 성격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해자 연령은 8-14세에 이르는 초등학생이 74.3%(159건)였으나, 7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도 25.7%(55건)를 차지했다. 가해 시작 연령은 4세(2사례)부터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0.1세였다. 피해자의 연령은 취학 전 어린이가 59.8%(131건), 초등학생이 38.8%(85건), 19세(1명)와 20대(2명)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 연령은 3세부터 나타났으며, 피해자 평균 연령은 7.3세였다. 19세와 20대의 성인 2명을 제외시켰을 때 피해자 평균 연령은 7.3세였고, 이들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피해자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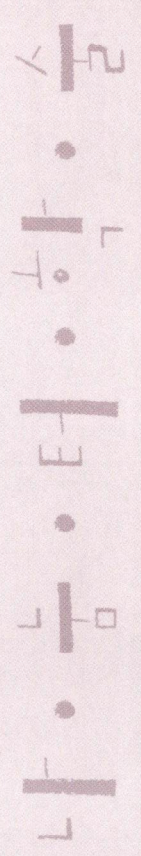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95.5%, 여자가 4.5%(10건), 피해자는 여자가 91.9%, 남자가 8.1%를 차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의 비율은 90.0%를 차지한 반면 모르는 사람은 10.0%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는 동급생이나 선후배와의 관계가 4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이 27.9%, 친족 13.2%로 나타났다.

2) 성폭력 유형

가장 많은 유형은 피해자의 성기접촉 40.9%, 다음으로는 성기삽입 11.8%, 구강성교 8.9%, 성기 이외의 성적접촉이 8.4%,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이 7.4%였다. 비접촉 성 성폭력 가운데는 피해자의 성기보기가 5.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훑쳐보는 등의 행위였다.

피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 유형을 보면, 남아피해는 구강성교 35.2%, 항문성교 23.5%, 피해자의 성기접촉과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이 각각 11.8%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아동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피해자의 성기접촉으로 43.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성기삽입이 12.9%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여자 아동은 성기 이외의 성적접촉 9.1%, 손가락의 항문 또는 질 삽입 7.0%등이다.



3) 발생장소와 유인방법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 건물이 전체 중 42.2%로 나타났고, 다음은 피해자 집 12.0%, 가해자 집 8.9%, 공동거주 7.8%, 피해자 집 주변이 6.8%, 운동장이나 놀이터가 5.7% 순이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놀이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성적인 장난을 치는 경우로 인한 피해가 5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연령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위협이나 폭력이 사용된 경우도 33.4%를 차지했고, 거짓말을 하거나 칭찬을 해서 유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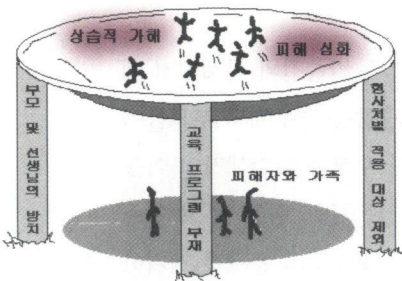
1) 미취학 어린이

7세 이하의 취학 전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동급생 및 선후배가 76.4%(42건), 이웃이 20.0%(11건)으로, 아이들이 주변에서 친밀하게 노는 또래들 사이에서 성폭력이 나타나고 있고, 성폭력 유형은 피해자의 성기접촉 64.1%(34건), 손가락의 항문이나 질 삽입 18.8%(10건)이 가해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의 발생장소도 유치원, 학원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6.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인방법도 75.0%가 놀이와 장난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취학 전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은 성적 유희가 생겨나는 시기에 놀이나 장난 형식으로 발생된 경우가 많고, 그 형식 또한 피해자의 성기접촉이나 손가락 삽입, 이물질 삽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다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일어났고, 성적 놀이화되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서는 부모가 발견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피해 사실을 부모보다 먼저 알게 된 경우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자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마주침으로 인해 생겨나게 될 문제 때문에 피해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원을 그만두

계 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

▲ 그림 : 나눔터

2) 초등학생

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성기접촉이 32.4%(46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성기삽입(15.5%), 구강성교(11.3%) 등이다. 즉 가해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개입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성기 이외의 성적접촉(11.3%)이나 비접촉성 성폭력의 비중이 보다 증가하는데, 이는 주로 5, 6학년 학생들의 같은 반 이성 친구들에 대한 성적 접촉, 언어적 희롱 등이었으며 화장실 등을 통해서 성기 훔쳐보기 등이 나타난 것이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인 경우 역시 동급생 및 선후배가 37.4%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취학 전 아동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반면 이웃이 32.3%, 친족 15.5%, 모르는 사람 12.2%로 나타난다. 즉 취학 전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생 가해자들의 경우 아는 사람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들로 확대되고 있다.

성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곳은 학교, 학원 건물 내로 28.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피해자 집 13.6%, 가해자 집 11.3%로 나타났고, 공동 거주도 9.1%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인방법에서 장난 형식은 49.4%로 줄어들고, 위협이 29.4%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도 11.7%에 해당한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지능이 떨어지거나 동급생이라도 나이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21건이나 나타났다.

초등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측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담임이 알고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가해자가 전학을 가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측에서도 강제적으로 이를 요구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3) 친족간 성폭력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친족성폭력은 29사례로 13.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해자 연령은 주로 초등학생이었고, 친(의붓)형제에 의한 피해는 37.9%, 사촌에 의한 경우는

58.6%로 사촌간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친족간의 성폭력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피해자 성기접촉, 성기삽입, 드라이 성교 등이고, 비접촉성 성폭력은 3.8%로 나타나 친족간 성폭력은 성적개입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관계에서와 달리 지속적인 피해의 비율이 높았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로의 노출이 적으며(29사례중 17사례가 노출), 노출됐을 경우에도 부모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경우는 2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들은 가해자인 아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에서 사촌기에 “있을 수도 있는 일”로 친족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게 때문에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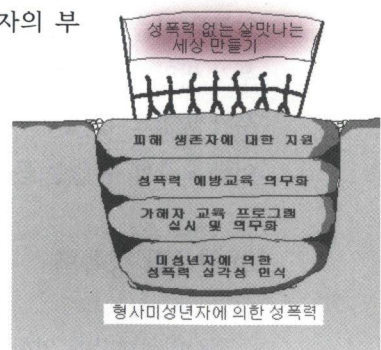
4) 폭력성과 상습성

형사미성년 가해자들이 성폭력에 위협이나 폭력을 수반한 경우는 총 40사례였는데, “얘기하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의 폭력이 사용되거나, 힘으로 억누르는 등의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심각한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들도 나타난다.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끈으로 묶거나 목을 조르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폭력이나 위협은 11사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9사례가 나타났고, 유형으로는 성기삽입에서 가장 많았다.

성폭력은 다른 범죄보다 재범율이 높는데, 12세 미만의 가해자들에게서도 이전에 가해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사례나 있었다. 이들의 연령은 초등학생이 9사례였으며, 취학 전 어린이에게서도 2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반복적인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들을 보면,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나 그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에 대한 지적을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 부모가 이를 부정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실을 안 후 부모님이 강하게 제재를 한 경우에도 성폭력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어 부모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가해자가 이전에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례도 3사례가 있었다.



▲ 그림 : 나눔터

3.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연령의 범주도 넓고, 성폭력의 정도나 유형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성교육,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나 학교 등의 기관에서 성폭력 발생시에 이를 묵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등에서는 이들에 대한 상담 창구 등이 마련되고, 성적 호기심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여 사소한 성적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이 유발할 수 있는 성폭력 가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선에서 교육하고 사건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하자면 무엇보다 담당 교사들에 대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고, 이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력의 피해에 덧붙여 외과적인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와 관련해서 상당한 비용의 경제적 손실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해자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해자 측에서 지拂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측에서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비 등을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성폭력지정병원 등을 통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의 실천적 역할

_ 본 상담소 성과 인권팀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주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성폭력 문제가 여성의 일상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제약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바로 여성의 삶 자체에 대한 고민과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존중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환경과 여성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할 때, 성폭력 문제는 여성의 삶에 가해지는 실제적 폭력으로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는 여성의 삶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본 상담소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먼저 가장 절박하게 부딪혔던 어려움은, 정작 남성의 변화 없이는 성폭력 근절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어려움은 성폭력 문제가 몇몇 소수의 성폭력 가해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모든 순간과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언제나 발생 가능하다'는 사실을 남성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을 종종 보게됩니다. "그것은 몇몇 나쁜 놈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를 가해자 취급하지 말아라." "모든 남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구조와 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차별적 권위와 권력이 성찰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그 순간에, 폭력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한 모습으로, 그리하여 정당한 것으로 행사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당연히 가해자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폭력인 줄조차 모르고 지나가게 되므로 말입니다.

‘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특별한 누군가로부터·반드시 의도적으로·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남성들이 이 진실을 이해하지 않는 한, 성폭력 근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원한 과제로서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상담소에서는 9월 26일~27일, 양일 간에 걸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 [성차별과 성폭력에 반대하는 남성 서포터즈 캠페인]의 세부사업인 이번 컨퍼런스는, 여성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문제가 남성의 실천적 참여와 변화 없이는 근절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성폭력을 발생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 남성들의 관계방식과 성문화의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의 준비와 진행은, 성폭력 근절이라는 과제가 여성의 과제가 아니라 남성의 과제를 인식하고,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몇몇 특수한 남성 개인의 변화가 아닌, 남성들의 일상 전반을 둘러싼 관계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아주 특별한 남성들 몇 명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잠재적 가해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주체로서 남성들의 실천적 참여를 제안하는 본 컨퍼런스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본 상담소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활동들의 연속이며,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토론에서도 지적되었던 바처럼, 남성들이 성폭력 근절에 있어서 ‘서포터즈’가 아니라 ‘주체’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과 가능성들은 이제 막 시작한 본 활동 속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일상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한 폭력성과 차별에 대한 성찰의 문화와 그러한 작업을 시도하는 남성들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 남성적 관계방식과 성문화에 대한 성찰 -

첫째날 - 남성들의 관계방식과 성폭력

성폭력은 분명한 사회적 범죄행위이지만, 성폭력의 심각성은 정작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이자 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파괴적인 행동이 너무나 일상적인 관계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행사되며, 용인된다는 사실에 놓여져 있다.

많은 가해 남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가해에 대해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맥락은, 문제라고 지적되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관계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보다 심각하게는 이러한 폭력이 그들에게는 친밀함 또는 호감의 표현이었다고까지 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묻게 한다. 남성들은 어떠한 관계 맺기의 방식들에 익숙한가? 이는 어떻게 학습되는가? 이러한 관

계 맺기의 방식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들을 제대로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가? 이러한 관계 방식들 안에는 어떠한 폭력성이 놓여져 있는가? 남성들이 관계 속에서 욕구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관계 속에서 그들이 욕구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진정으로 남성들이 욕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남성들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성찰은 첫째날 컨퍼런스의 주제로 기획되었다.



- 남성과 남성 : 관계의 미숙함과 폭력성¹⁾

성폭력 문제와 관련, 남성들의 관계 방식에 대한 성찰과 비판들은 대부분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 남성들의 태도 및 이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이라는 폭력적 언행이 여성에게만 갑작스레 발현되는 남성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성폭력 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남성들의 관계 방식 전반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게 한다.

남성들간 관계성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남성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대상은 아버지이다. 한국사회에서 아버지는 과묵한 존재, 애정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서 그 존재감이 인정되는 자, 더불어 그 과묵함 속에 가족 내에서의 모든 권력을 소유하는 자로 이제껏 존재되어 왔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친밀함을 어색하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머리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함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한다. 친밀한 관계의 표현으로서 '거칠게 대하기'는 남자다움의 상징이 된다. 더불어 소년들은 일상적으로 미숙한 관계성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받는다. '사내아이들은 원래 싸움도 하고 사고도 치면서 자라는 법이다' 라는 말들 속에서.

“내 경우엔 중고등학교(특히 고등학교)에서 받게되는 체벌을 견디는 것이 곧 남성적임을 증명하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했다. 교사의 몽둥이, 따귀, 발길질을 얼마나 오래, 담담하게 참아내느냐에 따라 성취도는 달라진다.”²⁾

남성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패거리 문화이다.

“패거리 안에서 소년들은 자신의 육체를 과시하거나(혹은 학대하거나) 자신의 남자다움을 증명해야 한다. 스포츠와 싸움이 거의 동일시되기도 하고 거친 욕설로 친구를 부르고 놀리는 것, 단정적으로 말하고 예정된 실패를 향해 두뼉두뼉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모습으로 간주된다. 이런 패거리 문화, 패거리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 소년은 비로소 남자가 될 준비

1.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 차우진님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2.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 25p 직접인용

를 갖춘다.”³⁾

이것은 나아가 군대라는 공간으로 연장되면서 극대화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드물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패거리가 아닌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남성 집단 안에서 친밀함은 여성성과 동일시된다. 손을 잡지 않는 것,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 것,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남성적인 어떤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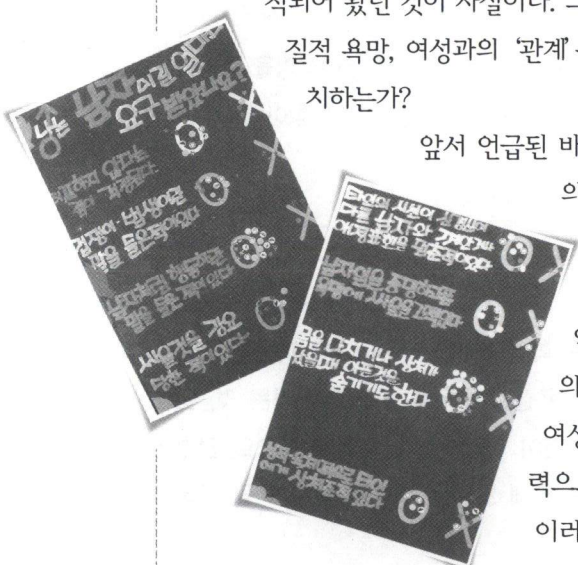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친밀하고 정서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특수한 대상- 연인이라고 말해지는 여성에게만 집중적으로 향해 지게 되며 허락되어진다.

- 남성과 여성 : 유일한 정서적 관계로서의 집착과 성애적 욕망⁴⁾

성폭력과 관련하여,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애화된 욕망과 이미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남성의 욕망이 남성들의 실질적 욕망,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얻고 있고, 얻으려고 하는 욕망들과 일치하는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친밀함의 적절한 표현과 적합한 정서적 소통의 방법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남성들은 남성과의 관계 안에서 익숙해진 폭력적 방식들을 보다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더불어 남성간 관계에서 쉽게 허락되지 않는 친밀함의 표현과 정서적 관계의 소통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 오직 연애라는 관계 안에서만 허락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는 보다 집착적인 관계와 또 다른 폭력으로 발전하기 쉽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



3.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 27p, 직접인용.

4.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 변형석님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통에의 어려움은, 남성들에게 '성적 관계의 진도'가 부진한 것으로 종종 이해된다.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고 섹스를 함으로써 남성들 사이에서 믿어지는 진도의 미진함이, 둘 사이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로 착각되는 것이다. 즉, 남성들에게 있어 친밀함의 정도는 성적 관계의 정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남성들의 이러한 이해방식은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주된 요인의 하나로 작동하게 된다.

둘째날 - 남성 성문화와 성폭력

우리사회의 성문화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며, 동시에 이러한 성문화가 성폭력 발생의 토대로서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한 논의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우리가 성폭력 문제의 근절에 있어 성문화의 문제와 개선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앞서 남성들의 관계 맺기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문화가, 어떤 개별적인 상황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과 관계에 대한 태도 및 시각들을 형성하고 반영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천착하고, 앞서 다루어진 우리사회의 남성적 관계 방식이 우리사회의 남성 성문화의 끊임없는 재생산과 소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우리사회의 성문화가 가지는 성폭력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의도 아래, 남성 성문화에 대한 성찰이 둘째날 컨퍼런스의 주제로 기획되었다.

- 남성 언어 문화⁵⁾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있어서 대화와 소통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언어들 혹은 언어 습관들은 상대에 대한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며 동시에 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들의 언어습관이 가지는 성폭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이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들과 말하기의 방식들 안에서 여성들은 쉽게 성적으로 대상화되어진다. 이렇게 대상화된 여성은 물리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대상화의 주체인 남성들보다 낮은 위치로 재배치된다. 이것은 그 대상화된 존재에 대한 평가와 심판, 처벌

5.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 정동혁님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의 권한까지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낸다.

- 인터넷(게시판) 상의 마초 문화⁶⁾

위와 같은 남성들의 언어습관에 내재한 폭력성에 더해서,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남성들이 나타내는 관계 맺기의 미숙함과 일방성 그리고 폭력성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이되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소위 인터넷 상의 마초 문화라고 이야기할 때, 이는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남성들의 폭력적인 소통방식과 관계 맺기의 태도들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온라인 공간을 통과하면서 보다 극대화된 현상들을 말한다.

관계에 대한 욕구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뒤틀려진 남성들의 욕망은, 온라인 공간 안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적 언행들로 유희된다.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의견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과 이를 통한 게시판의 공간적 점유는 이들에게 권력적 우위에 대한 허구적이고도 폭력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프라인 상의 남성 문화 및 폭력들과 무관하지 않다.

- 술자리 문화⁷⁾

우리사회에서 술자리 문화는 남성됨을 증명하거나 혹은 남성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이다.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은 진정한 남성성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지며, 동시에 남성 커뮤니티 안으로의 편입이 허락되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술자리는 보다 솔직하고 진솔한 교감의 자리로서보다는 사회적 연출망으로서의 든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이의 획득을 위한 남성들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술자리 문화가 보다 남성적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술자리 문화 안에서 여성의 편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에 존재한다. 여성은 이중의 과정을 통해 배제되어지는데, 하나는 배제이며 다른 하나는 성적인 대상화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공고화시켜내고, 술자리라는 형

6.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 차우진님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7.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 서희용완님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식을 통해 여성에 대한 보다 폭력적인 언행과 그들의 폭력적인 권력 행사를 정당화시켜내게 된다.

- 야설 · 포르노 문화 ⁸⁾

야설과 포르노가 남성 성인식의 토대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남성들이 야설과 포르노를 통해 처음 성과 접하게 되며,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에 대한 허구적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판타지를 구성하게 된다. 야설과 포르노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남성 판타지가 실제 현실 안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구현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더 이상 진부한 지적일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이처럼 남성들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판타지에서 남성들조차 자신들의 성적 욕망과 만족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야설과 포르노의 서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남성들의 성적 만족이 오직 상대방에게 의존된 방식으로서만 확인될 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더해, 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실제 여성들의 욕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들의 실천적 참여와 변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친밀함의 표현과 정서적 교감을 보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만들어 가는 것. 이러한 과정 안에서 폭력적인 관계 맺기의 방식들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일상 속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체득하는 것.

이처럼 일상 속에서 남성들의 관계방식과 태도들이 변화할 때, 이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고 재생산시켜내는 우리사회의 성문화 또한 변화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 이, 성폭력이라는 명백한 폭력이 폭력으로서 인지되고, 거부되며,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⁹⁾ 

8.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 변형석님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9.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고민들은, 이후 보다 진지한 우리 안의 성찰과 고민들을 더해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남성들이 일상에서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지침들을 담은 『가이드 북』, 발간 그리고 『온라인 운동』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Men's Work

남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하고 폭력적인 무장을 한 채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닌 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남성에게 내면화시키는 폭력성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함께 아래의 질문들을 꼼꼼히 읽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함께 토론하는 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내용들은 MEN'S WORK(1992, HAZELDEN)를 번역,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남성!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Q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 A
1. 만약 남성들끼리의 친밀한 관계를 피하도록 훈련받지 않았다면,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은지요?
 2. 만약 사랑과 감동의 대상, 정서적 지지자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여성을 상정하도록 훈련되지 않았다면, 여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은지요?
 3. 당신이 이성애자라면 스스로가 게이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당신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요?
 4. 남자들 사이에서 '게이같다' '여성스럽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되는 때가 있나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감정이나 행동들을 피하고 숨기는 부분이 있는지요?
 5.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남자들과 안거나 몸을 만지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6.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지지 받을 수 있는 친밀한 남자친구가 한 명 혹은 한 명 이상 주위에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7. 남자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고 여성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다고 느끼는 당신의 정서적 욕구는 무엇인가요?
 8. 남자들과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훈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장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이나 좌절감 등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 느낌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9. 가장 최근에 남자친구에게 고마움, 애정을 표현해 본 적은 언제인가요?
 10. 게이 남성에 대해 비하하는 말이나 농담을 들었을 때 중재하거나 같이 끼어든 적이 있나요?

11. 당신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서 화가 났거나 모욕감을 느꼈었던 여성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12.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큰 애정을 느꼈던 남성의 이름을 써보세요.
13. 친해지고 싶었으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지 몰랐던 남성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런 경우를 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14. 요즘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 남성, 남자친구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적어보세요.

여성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Q

아래 문장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A

1.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보다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방법으로 말을 끊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2.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있다.
3. 얘기하고 있는 동안 얘기에 집중하기 보다 계속 가슴에 시선을 두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4. 지나가는 여자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느라 하고있는 생각, 하고 있는 말을 방해받거나 끊긴 적이 있다.
5. 함께 있는 여자를 다른 여자보다 예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6. 여성의 몸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거나 코멘트를 한다.
7. 다른 남자와 여자 몸에 대해 언급하거나 비평한다.
8. 여자들한테서 성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9. '섹스보다는 더 많은 애정을 원한다.'는 말을 여자친구한테서 듣는다.
10. 다른 여성과 성관계, 성적으로 친밀한 적이 있음을 여자친구에게 속인다.
11. 여자친구에게 피임의 책임을 맡겨둔다.
12. 여자친구가 남성의 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3. 여성을 **년, 매춘부 등으로 부른다.
14. 당신 혼자 있을 때, 혹은 남자친구들과 같이 있는 그룹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고함을 치거나 짹 움켜잡는 등의 행동을 한다.
15. 여성을 위협하거나 겁주려고 자신의 목소리나 몸을 이용한다.
16. 당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자친구, 애인을 협박하거나 그녀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스스로 자해한 적이 있다.
17. 여성을 때리거나 치거나 밀어내거나 밀친 적이 있다.
18.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증인보호제도 시행하는 울산지검

지난 6월과 7월, 울산지검에서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 증인보호제와 피해자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가해자와 그 주변인에 의한 협박, 보복의 위협,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은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측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법적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반갑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지난 9월, 해당 울산지검의 검사장 안영욱님을 서면 인터뷰로 만나보았습니다.



나눔터 : 피해자 권리 확보 제도를 마련한 울산지검에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공판정 출석 증인 보호제도’ 를 시행하게 된 동기가 궁금한데요.

울산 : 우리 검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증인 보호 제도를 실시중입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사건 등의 증인들이 피의자나 그 동료 또는 가족들의 협박이나 조롱, 모욕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법정 증언을 회피하거나 증언을 한 뒤에도 불안에 떠는 등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과 직면하면서, ‘이렇게 증인이 마음놓고 법정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사법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는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나눔터 : 어떤 피해의 경우에 공판정 출석증인제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 공판정 출석증인제도의 보호조치는 법정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죄명에 따른 제한은 없고** 사건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협박 또는 증언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심리적 압박 또는 수치감 때문에 법정 출석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터 : 구체적인 보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울산 : 증인보호는 수사검사가 보호할 증인을 선별하여 공판검사에게 통보하면 공판검사는 법원과 협의해서 해당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판검사는 해당 증인에게 보호통지를 해 주고, 증언 당일 검찰청에 설치된 증인보호실에서 증인을 대기하도록 한 뒤, 증언시간에 맞추어 우리 청 증인 보호요원의 동반 보호 하에 출정하여 증언을 마치고 우리 청 증인보호실로 복귀한 뒤 증인을 귀가조치하게 됩니다.

나눔터 : 증언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협박 등의 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울산 : 증언 후에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의 주거지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거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증인의 신변안전조치를 취합니다.

나눔터 :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이 보호받은 경우들이 있었는지요?

울산 : 현재까지 16명의 증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시행하였는데요. 다단계금융판매회사의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 공판에서 대표이사 일당에 의해 신변위협을 느낀 나머지 증언을 거부하던 회사의 여자

경리직원을 설득하여 증인보호를 함으로써 증인을 하도록 했고, 폭력배 부두목에 대한 폭력사건에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여 공판정 입구에서 동료 폭력배들 7명이 증인을 납치하려던 시도를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일이 있습니다.

나눔터 : 기존의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에서는 특정범죄, 폭력범죄 등에 한해서 신고자 보호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법과 이번 공판정 출석증인 보호 제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울산 :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서는 강력, 마약, 조직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의 신고자 또는 그 가족에 한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 이러한 개별적인 법률은 대상 범죄나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증인보호제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 법률들에 보호는 ‘보복범죄의 우려’나 ‘증인의 생명, 신체에 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등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데 반하여, 증인보호제도는 그러한 고도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증인이 심리적 압박 또는 수치감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 혼자 나가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률들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은 경찰관의 직접적·상시적인 비교적 강력한 보호를 의미하는데 반해서, 증인보호제도는 법정출석 전후에 증인 보호요원과 동반출석을 통상적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보호를 제공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나눔터 : 그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되게 겪어왔던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고 느끼셨는지요?

울산 :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회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력감, 범죄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범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무뚝뚝한 질문 태도를 접할 때의 곤혹감, 피의자가 부인이라도 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을 수회 출석하여 되풀이되는 심문에 응해야 하는 피곤함 등을 주된 어려움으로 호소하여 왔습니다.

나눔터 : 피해자가 겪는 조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귀 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울산 : 우리 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수사절차부터 공판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사 등 법률전문가가 직접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피해자 상담실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의 피해자 상담실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목적은?** : 피해자 상담실은 상담을 원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한 후,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바람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진일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
- **역할은?** : 피해자구조금지급·배상명령 신청·피해자 법정진술권 등 피해자의 각종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사건조치, 재판진행병과 조회, 가해자 석방여부, 판결결과 등 필요한 사건정보를 제공.
- **의의는?** : 증인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는 증인보호제도와 연계하여 보호 조치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폭력 피해자에게는 전문 지원단체, 보호시설을 안내한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조사실」에서 여성검사 등 입회하에 성적수치심 없이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단서 발급 같은 증거확보와 치료를 위해서 전문의료시설을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이용을 안내한다.
- **운영은?** : 피해자 상담실은 민원전담검사가 민원담당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전담검사실의 직원 2명이 필요할 경우 업무를 보조한다.

울산지검의 경우, 피해자 상담실 외에도 ‘피해자 조사실’을 설치하여 성폭력범죄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대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 상담실과 피해자 조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범죄피해자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검찰청에서도 울산지청의 ‘피해자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이라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나눔터 : 피해자 구조금 지급과 법정 진술신청 지원 등 각종 권리 행사를 위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방법에 대한 안내 이외에 직접 지원도 가능한지요. 현행 배상명령제도는 성폭력피해자,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데 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울산 : 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관장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므로 우리 청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대상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3조 참조), 실제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배상명령제도에 의한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뿐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참조).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배상명령제도와 달리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구조금지급은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고, 그 요건과 대상 등이 배상명령제도와는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나눔터 : 피해자의 법정진술신청 지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 법정진술신청권이란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 294조의 2 참조). 우리 청의 법정진술신청권 지원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청권의 요건과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청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교부하여 직접 작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나눔터 : 성폭력뿐만 아니라 대개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와 정책이 범죄자 인권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왔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평소 사건을 담당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울산 : 그 동안의 형사정책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도외시되어 왔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그 이상으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고통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는 정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눔터 : 사건 지원자, 상담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울산 : 우선, 성폭력 피해가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말없이 감수해야 할 일이 아닌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로 인한 피해라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도 인식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고자 변화되고 있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의 역할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단체의 상담원이나 자원활동가 분들의 활동이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림 : 나눔터

올들어 검찰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여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여성피해자 조사와 관련된 수사관교육·수사기법 연구 등을 맡아하도록 하는 여성담당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등과 더불어, 무엇보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자의 확고한 의식과 이러한 취지가 수사관 전체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범 운영 중인 여성담당관 제도, 그리고 울산지검의 적극적인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 효과로 가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_ www.unninet.co.kr

성폭력에 대한 여전한 편견과 여성 인권에 대한 불감함을 확인하며, 조금 지치고 힘든 마음에 스스로 온 몸을 고옥 안게 될 때, 따뜻한 어깨동무를 해오는 다정하고 든든한 이웃집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 상담소가 '성폭력 없는 살맛 나는 세상'에 대한 꿈을 보다 힘차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웃집 놀러가기)라는 꼭지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둘러보세요. 이웃집 언니들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언니네는?

언니네는 여성주의 사이버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2000년 4월 처음 언니네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만 해도 그저 사람들이 들어와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기뻐했었습니다. 그 후 세 번의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언니네는 회원 중심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언니네를 만들 때 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곳, 여성이라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과 흐뭇함이 될 수 있는 곳, 여성주의의 상식이 강물같이 흐르는 곳, 우리의 상상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바꾸는 곳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성의 삶에 대한 가식적인 희망보다는 솔직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 시각과 느낌을 공유하여 진정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커다란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언니네는 이 꿈을 같이 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꿈이 이루어질 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니네의 회비제, 상생의 꿈을 향해

2003년 8월 개편된 언니네는 부분적인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니네를 괴롭혀왔던 사이버 마초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료화를 통해 견인 회비로 상근활동가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 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여성주의자들이 한푼두푼 모아주신 회비로는 언니네, 언니네와 함께 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상생(相生)의 길을 열어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비 품앗이를 통해 친구 생일에 언니네 쿠폰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기꺼이 지지의 손을 내밀어주는 언니네의 따뜻한 마음이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니네 마을 가상 여행

그럼 잠시 언니네 가상여행을 와보시겠어요? 언니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만의 방'입니다. 언니네에서는 누구라도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은 어디서든 다 말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성의 생생한 주장들이 살아있습니다. 여성들의 글쓰기가 편안하고 자매들간의 소통이 가장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블로그가 언니네 '자기만의 방'을 많이 닮았더군요. 흠, 드디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부듯. 으쓱~ ^^;;

또 새롭게 개편하면서 언니네 광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언니네 광장은 온라인을 통한 여성주의 이슈의 활성화나 다양한 사이버 여성활동을 위한 많은 방법들도 만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주의자들의 작은 모임과 이슈 파이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오피스'와 '온라인 서명', '사이버 풀'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하고픈 이야기나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언니네에 온라인 기점을 마련하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단체는 단체 소개와 후원금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서명에는 '성폭력 생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서명이 올라와 있군요. 사이버 풀에는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니들은 "핸드폰 저장목록을 주욱 봐도 전화할 사람이 없을때"라는 대답에 제일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이버 오피스에는 개인별 신분등록제 공대위와 요가명상커뮤니티 뷰티언니네,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준비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여행-스피크 아웃 홍보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월간 언니네'와 언니네 '작업실' 그 뿐 아니라 언니들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집'이나 '포커스', '여성뉴스 클리핑' 등을 통해 여성주의 콘텐츠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 만든 '작업실'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언니들의 그림, 사진, 영상, 음악방송이 모일 수 있는 사이버 여성 문화창고입니다. 함께 짬아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어린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든든한 벗 - 시드니 댐프나 하우스

본 상담소 소장 _이미경

7월, 무더위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시드니는 한 겨울 날씨였다. 호주 여성학회에 참가한 본 상담소의 정경자, 이명선 자문위원과 함께, 어린이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댐프나 하우스(Dympna House)를 찾았다. 전화로 방문을 예약하고 찾은 상담소는 대로변에 위치한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언제나 열린 공간인 우리나라의 성폭력상담소들과는 달리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인터폰으로 신원을 자세히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다. 내부로 들어가니 다소 딱딱한 사전 절차와는 달리, 두 개의 주택을 터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상담실은 아늑함이 느껴졌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상담원과 스텝들의 인상은 따뜻하고 활력이 넘쳤다.

댐프나 하우스는 시드니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 두 곳 중 하나로, 시드니 강간위기센터(1974)에 이어 1984년에 문을 열고 지난 20여년간 어린이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을 상담해오고 있다. 댐프나는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인 왕으로부터 결혼할 것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한 15세의 아일랜드 공주로, 후에 성(聖) 댐

왼쪽부터 Julie Freckleton,
이미경, 정경자, 이명선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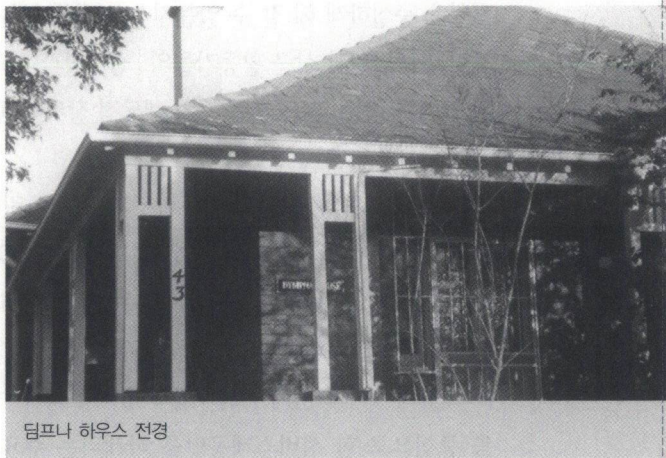


프나로 추대된 사람이다. 댐프나 하우스는 그 공주의 이름을 따서 어린이성폭력피해 생존자를 돕기 위해 세워졌다. 댐프나 하우스 설립의 기본 철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는 어린이성폭력의 책임이 없다. 둘째, 어린이성폭력은 100% 가해자 탓이다. 셋째, 어린이성폭력은 신뢰에 대한 배신이며, 힘(권력관계)의 오용이다. 넷째, 어린이성폭력은 피해 생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어린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은 그 피해를 극복할 힘과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만난 줄리 소장과 모니카 상담원은 딤프나 하우스가 무엇보다 여성주의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호주는 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와 관련정책이 우리보다 20여년 정도 앞서있다.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은 각 국·공립병원에 설치된 성폭력센터에서 무료로 의료적 처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은 우리나라의 구청, 군청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잘 구축된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딤프나 하우스에는 상담을 신청한 어린이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의 대기명단이 6개월 정도나 밀려있다고 했다. 이는 어린이성폭력피해의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과,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의 역할에의 기대를 반증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 연구를 보면(Finkelhor et al, 1990) 27-34%의 여성과 9-16%의 남성이 어린시절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의 90-97%는 남성들이며, 95%가 아는 사람이다 (NSW Sexual Assault Committee, 1993). 이는 우리 상담소의 상담통계에서 아는 사람비율이 78%인 것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딤프나 하우스는 어린이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그룹상담을 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한해동안 딤프나 하우스에서는 1800(Hot Line)을 포함해 총 7,142건의 전화문의가 있었다. 이중 어린이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어른들이 4,33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16세 이하의 피해생존자가 직접 전화한 경우는 24건이었다. 이들 문의 전화 중 실제적인 전화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2,819건이고 면접상담은 310건, 그룹상담은 473건이 진행되었다. 면접상담 대상은 71%가 어른들이었고,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들은 29%였다.


딤프나 하우스에서는 상담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알콜·약물중독 예방활동과 출판활동 등도 함께 하고 있었다. 특히 『Facing the Unthinkable(생각지도 않았던 일에 직면하기)』, 『Stepping Out: Incest Info for Girls(적극적인 대응 : 소녀들을 위한 근친강간 정

이웃집놀러가기 II

보) 등의 소책자는 각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있어 피해생존자나 상담원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였다. 또한 직접 어린이들을 상담하는 방은 여러 장난감을 갖추고, 가구배치와 벽지 색상 등을 어린이의 취향에 맞춰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이곳에는 총 8명의 상근 활동가가 일하고 있는데, 상담이 힘든 일이라 잦은 교체가 있긴 하지만 평균 3년 정도의 경력이라고 한다. 또한 활동가들의 재충전을 위해 교육, 훈련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였다.

1시간 반 동안의 면담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호주에서도 어린이 성폭력 문제에서는 우리와 함께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성폭력 추방운동과 비교해 활발한 이슈화나 운동의 역동성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어린이 성폭력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딘프나 하우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특히 통합상담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추세와 비교해 무엇이 내담자 지원을 충실하게 해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상담원과 상근 활동가들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된 급여와 각종 교육, 훈련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의 상담소 활동방향과 재정자립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상담소의 경우 정부지원이 30%정도이며, 이 점은 여성운동 단체로서 자율적인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에 딘프나 하우스의 1년 예산 405,862달러(한화 약 3억2,500만원)중 정부지원이 약 400,000달러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딘프나 하우스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일하지만 상담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공만을 하게되는 주요요인으로 보였다. 정부 지원이 많아지면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민간단체로서의 정체성은 딘프나 하우스의 경험에서 미리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사례였다.

20여년의 현장경험이 있는 줄리 소장은 우리나라의 활발한 성폭력추방운동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두 상담소간의 지속적인 연대와, 현재 딘프나 하우스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연대도 함께 해보자고 제의했다. 이번 딘프나 하우스의 방문을 통해 성폭력은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과,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매들이 있다는 든든함, 그리고 더 활발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라크에 다녀와서

본 상담소 상담원 수 하



지난여름 이라크에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전쟁 전부터 반전활동을 해왔던 이라크반전평화팀이 전후에는 이라크 민중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고, 운 좋게도 평화팀의 마무리 활동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이라크에서 후세인, 석유, 사막...과 같은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라크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전쟁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큰 보탬이 될 수 없을지라도 전쟁의 결과를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라크로 향했다.

요르단 국경을 넘어 이라크에 들어서니 뜨겁고 강렬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미 50도가 넘는 기온을 견뎌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으리란 긴장이 밀려왔다. 다행히 건조한 날씨 탓에 땀은 쉬이 말랐고, 무더운 날씨는 이라크 사람들의 생활습성을 따라가다 보면 견딜만한 것이 되었다. 이라크에선 보통 낮 1시부터 4-5시 정도까지는 가게문도 닫고 병원도 운영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가장 무더운 그 시간 동안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내가 머물던 숙소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알 마시델 지역 근처에 위치해있었고, 우리는 후세인 정권 시절에 군사시설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개조해

만든 알 마시델 병원에서 '동양의료지원방'을 운영하고, 병원 건물 뒤편에 어린이 도서관 겸 놀이방을 만드는 일을 했다. 7월 첫째 주에 어린이 놀이방 개관 행사를 예정하고 있었기에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 벽을 새하얀 페인트로 칠하고, 청소를 하고, 놀이터 주변에 흩어져 있는 탄피를 줍는 일을 했다.

7월 첫째 주, 어린이 놀이방 개관 행사를 한 후에 우리가 놀이방 주변에 만든 연못과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못물과 수영장물이 쉽게 더러워져서 바닥이 안 보이는데다가 바닥에 깔아놓은 자갈에 아이들이 발을 다친 것이다. 몇몇 사고를 이유로 어린이 놀이방은 보수공사를 해야 했고, 한참의 논의 끝에 연못을 흙으로 메워 정원을 만들고, 수영장에는 새롭게 펌프를 설치해서 자주 물을 갈아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일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는 이유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도 있었지만, 타인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서툴렀던 탓인지도 모른다.


이라크는 전쟁 이후에 전기시설, 발전소 시설 등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었고, 치안문제와 실업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의 것이었다. 후세인 독재를 없애주고 이라크에 해방을 주겠다고 미국이 점령

후에도 전쟁피해 상황들이 복구되지 않고 있었기에 불만은 커져가고 있는 듯 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이라크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이다. 에어컨을 돌리고, 펌프로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할 필요 없는 이유들 때문에 전기가 없는 일상은 불편을 감내하는 수준 이상으로 일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또한 가끔씩 들려오는 사고소식은 당혹스러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던 살람은 7월 초에 바그다드 하이퍼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이라크인 한명이 미군을 공격하고 도망쳤는데, 곧바로 미군들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서 11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매일 비슷한 종류의 죽고 죽이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유 없이 부상당한 사람들로 인해 미군에 대한 분노는 커져가는 듯 했다. 이라크를 나오는 7월 말까지 미군들이 지키고 있는 건물, 경찰서, 심지어는 유엔 건물의 담장조차 경계를 점점 더 높여만 갔고, 11시 이후에는 통금조처까지 있어서 우리 또한 안전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라크를 떠나기 전에는 걸프 만에 위치한 바스라에서 3일을 보냈다. 유전지대로 알려진 바스라는 전쟁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 중 하나이다. 바스라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진 건물과 다리, 건물 벽에 선명한 총 자국이 눈이 들어왔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 흐르는 샤프 알 아랍 강 위엔 91년

걸프전쟁 때 폭격당해 침몰된 배가 여전히 누워있었다. 이라크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앓았고 거리 곳곳에 남겨진 전쟁의 상해들과 함께 사람들의 일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바스라지역은 이라크 전쟁 전 두세 달 전부터 폭격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작년 12월 초에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서 돌아오다 폭격피해를 입은 5살 난 야서의 집을 방문했는데, 야서는 영국군이 투여한 폭탄을 때문에 손가락을 잃었고 배에는 파편을 꺼낸 커다란 상처가 남아있었다. 바스라 어린이 병원에서는 지난 걸프전쟁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스쳐가듯 아이들을 만나면서, 전쟁은 나쁘다고 수없이 되뇌일 뿐이었다.

바스라 다녀온 후 이틀 뒤에 이라크를 떠났다. 이라크 국경을 넘어 요르단에 도착해서야 더 이상 정전과 헬리콥터 소음, 가끔씩 들리는 총소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막상 이라크를 떠나와서야 전쟁을, 이라크를 앓았다. 아픔 없이 전쟁에 대해, 이라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고, 무거워진 마음은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게만 했다. 한순간의 폭격, 한순간의 전쟁은 여전히 이라크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나는 이라크 사람들의 힘으로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고 문제를 해결해낼 힘이 있다고 믿는다. 한국군 파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창인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건 군대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미리보는 상담소

▶ 중학생 아이들과 '성'으로 즐겁게 만나기 -참여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교육 교사 워크샵-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에서는 성교육을 직접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현직교사,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이들과 '성'으로 즐겁게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중학생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놀이, 욕망, 꿈 등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참여학습 형태로 구성되어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1차 : 11월 15일(토), 16일(일)
- 2차 : 11월 24일(월), 25일(화)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 참가비 : 1만원(교재비), 식사 제공
- 문 의 : 김언정 연구원 (T.338-2890)

▶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공개 세미나

본 상담소는 서울, 경기지역의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뢰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3년 11월 10일(월) 2:00~5: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형사사법절차상의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본 상담소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관행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11월말 예정)

▶ 성폭력 사건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없는 방송문화 만들기 보고서 발간

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에서는 공중파 방송 3사의 사건 보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가치관,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는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11월 말 예정)

'2003, 1호 생존자 말하기 대회'

성폭력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왜 우리는 소리내어 말하려 하는가

성폭력 생존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제대로 이해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자의 말을 자꾸 판단하려 합니다. '진짜일까? 아닐까?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마음의 말이 표정으로 다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깊이 공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잣대로 생존자의 경험을 왜곡하여 듣기도 합니다. 생존자는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의한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도 무방비 상태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고 또 스스로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들은 생존자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오래가는 고통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혹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픔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 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자들은 공감 받고, 지지 받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말할 곳이 그 어느 곳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자기 안의 힘을 많이 키우지 못한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 져야 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공감과 지지를 나누고 싶은 생존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03 10월, 스피크아웃 기획단 드림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직 걱정이 많고, 소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해 낼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지금 을 떠올린다면 저는 분명 열심히 노력했노라고,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 애썼노라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는 이유는, 우리처럼 속으로 앓으며 자신의 진정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혼자 울고, 혼자 지우는 고통을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하지 못해 가슴앓이 해야 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떨쳐내면서, 갑갑하게 쌓였던 양금을 털어 내보자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열린 응원과 지지를 받아봅시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장에서 맘껏 내질러봅시다. 정말 '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속에 담아두었던 몇 번이고 반복해서 되뇌이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고, 이제 조금 활기있게 활력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이 난다면 나도 뛰어올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힘을 이어받아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치유를 향한 긴 여행을 떠날 겁니다. 당신과 꼭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저에게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2003년 10월, 생존자가 보내는 편지



행사 개요

■ 사전행사

그림과 시로 하는 생존자의 말하기

- ∴ 지지의 장 : 생존자와 주변인,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의 전시와 상담방 운영
- ∴ 치유의 장 : 〈생존자의 작품〉, 〈생존자의 벽보〉, 〈소원성취탑〉,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해우소〉 등의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

■ 본행사

말과 노래, 연극으로 하는 생존자의 말하기

- ∴ 소통의 장 : 〈생존자들의 릴레이식 생존기 발표회〉, 생존자들이 직접 준비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 본 행사의 내용은 참여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 ※ 행사날짜와 장소는 참가자에 한해 공개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 문의메일 : speakout2003@hanmail.net ▶ 문의전화 : 02-338-2890
- ▶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www.unninet.co.kr/speak 생존자 말하기 대회 홍보 커뮤니티



이끼없이 죽는 나무



상담소의 의미 있는 걸음에 여러분의 귀중한 한 걸음을 보태주세요 !!

쌀쌀한 기운속에도 따뜻한 햇살이 있어 웃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해없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살고 있을 여러분이 떠오르네요.

혹시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이 될까 하고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힘들고, 실재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쳐가다가도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
고, 세상사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접하게 될 때,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 중에 지금의 성차별적인 사회를 바꾸고, 일상적인 성폭력을
근절시키는 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 귀 기울여 들어보아 주세요.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 특히 일상화된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는 어렵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보태는 것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고 봐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
담소에 후원을 꾸준히 해 오고 계신 한 회원님의 하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성폭력을 뿌리 뽑고, 양성평등한 성문화를 만드는 일, 상담소
의 의미 있는 힘찬 걸음에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태 주시는
것, 참 멋진 일이겠죠?

여러분과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
한 끊임없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긴 숨을 크게 쉬고 같이 걸어

볼까요?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나눔터>를 보내드립니다.
- 상담소 발간 자료를 20% 할인해 드립니다.
- 상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좌, 교육신청시 수강료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 각종 상담소 행사에 초대됩니다
- 회비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납부 방식

- **cms 자동이체** - 금융결제원의 협조로 회원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회비가 상담소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담소에 알려주시면 매달 26일 약정하신 금액이 인출됩니다.
- **자동이체** -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상담소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

- | | |
|--------------------------|-----------------------|
| • 국민은행 009-01-1176-632 | • 외환은행 224-22-02532-8 |
| • 기업은행 216-013179-01-018 | • 조흥은행 308-01-133092 |
| • 농협 037-01-194301 | • 우리은행 441-04-107528 |

- **지로 납부** - 3개월에 한번씩 3개월 분의 지로가 연 4회 우편 발송됩니다.
위의 납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어 기획조직팀 김지선 간사(02-338-2890)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 물품과 기금으로 열림터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전종현, 이랜드, 언니네, 박보연, 늘푸른여성정보센터, 김혜경, 김혜정, 이미경, 아린, 정혜심, 이효숙, 던킨도넛,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숙자, 박미경, 열림터 겨울실습생, 존타클럽, 여성작곡가회, 안홍례, 니콜라, 시청여성정책과, 마포구청, 박윤숙, 김효석 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건강한 가을 햇살-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



☒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

강가람 강수연 권김현영 김두나 김사라 김연기 김원식 김은정 김주희 남우희 노미선 류인경 박경서 박내현 박종선 백선희 서백영희 서혜석 송영훈 안 민 안재훈 엄인숙 유성혜 유영숙 이영애 이유정 이창윤 이혜숙 정정희 정혜련 조민우 조은숙 조재학 차정혜령 채우리 채현숙 최윤수 황순경

☒ **2003년 4월부터 2003년 8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남식 강수연 강인화 강현정 강해진 계경문 계경희 고계영 고금이 고영석 고정남 고진규 고혜순 곽은하 곽혜영 구길자 구나은 구민지 권경희 권수현 권순남 권정현 권주희 권해수 권혁건 금철영 길종성 김강자 김경선 김경원 김경현 김경희 김광진 김금란 김남수 김남오 김덕현 김도경 김동령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명순 김미경2 김미라 김미숙1 김미숙2 김미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수 김민지 김병숙 김보연 김사라 김삼화 김선민 김선에 김선희 김성득 김성신 김세중 김소명 김소연 김숙희 김순자 김순형 김언정 김엘림 김연기 김연정 김연희 김영서 김영애 김옥선 김용란 김용자 김원식 김원희 김윤경 김은미 김은정 김응진 김의창 김이윤상 김인숙 김일륜 김정신 김정희 김재원 김중구 김중현 김주필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1 김지연2 김지영 김지윤 김지혜 김진만 김진희1 김진희2 김하연 김해경 김현민 김현란 김현수 김현식김현정 김형수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후자 김홍식 김희경 나길희 남순열 남우희 남정현 남현미 노미선 노순희 노주희 도경숙 도순아 류수진 류인경 마수정 맹주현 문강진 문해란 문효진 민응기 민현경 박경실 박경원 박경화 박귀자 박내현 박미경 박미숙 박미향 박선희 박성근 박소연 박소영 박소복 박순주 박신옥 박신정 박은숙 박은숙 박정옥 박정희 박종선 박준규 박지영 박지현 박진성 박진숙1 박진숙2 박찬운 박창은 박현주 박혜영 박혜진 배은경 배희진 상묵스님 서명선 서미현 서민자 서성준 서정표 설연자 성시녀 성은주 손경희 손명숙 손수경 손이진 손종성 송문숙 송수영 송영훈 송현숙 신동헌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희 신숙희 신은주 신정혜 신희경 suns 30대 싱글모임 심수희(김인옥) 심혜련 안경희 안 민 안재훈 안철민 안향숙 안형윤 안홍례 양애경 양연주 양효준 엄경출 엄인숙 여영자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유지 오은순 오정은 오정진 오정현 오태형 오현숙 오희선 오희옥 옥민영 우순영 우안녕 원형섭 원혜정 유경숙 유성혜 유숙영 유은주 유인숙 유자인 유현광 육향순 윤명화 윤선화 윤숙경 윤애리 윤양현 윤영미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윤형흔 윤희숙 이경로 이경미 이경아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근혜 이근호 이나미 이내화 이대영 이덕화 이락현 이명숙 이명자 이미정 이민영 이민희 이백수 이병규 이상근 이상미 이상은 이석민 이선숙 이성수 이성재 이소영 이소진 이수자 이순순 이애란 이어진 이영분 이영식 이영애 이영표 이유정 이윤선 이윤성 이은미 이은애 이은정 이재인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종란 이종환 이창윤 이철현 이춘미 이푸른메 이현숙 이형민 이혜경 이혜숙 이호숙 이호진 이호숙 이희영 이희화 임민희 임복선 임순영 임자영 임종은 임주희 임홍섭 장윤경 장재정 장철우 장하정 전민숙 전성혜 전연배 전유경 전홍석 전희진(김환수) 정교화 정금자 정남은 정대현 정문영 정신애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석 정유순 정윤이 정은선 정은숙 정이숙 정인희 정정희 정호성 조경희 조민우 조소연 조순희 조은숙 조은희 조이수현 조인옥 조재학 조중신 주남숙 주명희 지인순 차성안 차유나 채우리 채인기 채지수 천정환 최경식 최귀복 최금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현 최보원 최선규 최수정 최양렬 최영숙 최영애 최옥경 최옥득 최윤수 최윤정 최은경 최은미 최은순 최정운 최지녀 최혜숙 하은주 하일호 하진옥 한기모 한보경 한재철 허나윤 허은주 허준복 홍기선 홍만희 홍보연 홍성복 홍순기 홍승아 홍윤기 홍은정 황성기 황순경 황재호

☒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

강정자 강학중 고정남 권윤진 김경현 니콜라 변혜정 신동연 안형정 이명선 이미경 이병규 이상구 장필화

자기 옷 사러 가서 애들 옷만 사 온 아내 난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비싼 화장품, 비싼 음식 모르고 산 당신입니다. 아이들 학원비 밀리지 않기 위해,
작아도 우리 집 갖기 위해 비상금을 모으고, 동전을 따로 모으는 당신입니다.

힘들 때도, 속상할 때도 우리 앞에선 늘 웃고 있는 사람-

당신은 하나뿐인 내 아내, 내 천군만마입니다. 지금까지 못해준 거,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호호 할머니가 돼도,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의 마음으로 삼성생명이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본 상담소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을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4만 1천여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부설<열린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편을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 (02) 338-2890~2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상담·열린터 입소문의 ☎ (02) 338-5801~2

■ 인터넷 상담: ksvrc@chol.com

■ **이사장** 김삼화 ■ **이사** 김삼화 문해란 박찬운 이명숙 이미경 이백수 이유정 장철우 최영애 최보원 홍순기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자문위원** · **교육** 교사/김성애 백영애 교육학/김인수 서영곤 정유성 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저널리스트/박미라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조국 김엘림 변호사/강기원 고순례 김삼화 김의창 남성렬 박성호 박찬운 손명숙 윤영규 이명숙 이백수 이유정 이지선 이창윤 이향아 임종인 장경호 장철우 정성광 정영순 최은순 최현희 경찰/김강자 이금형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상담심리학/권혜수 김순진 김정규 이윤로 이장호 이혜성 장연집 정담은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이원숙 한인영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정영숙 법의학/강신몽 권일훈 문국진 서중석 이경룡 이운성 최영식 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김홍배 문영규 민용기 박근자 박종민 손인숙 안명옥 윤경 윤연정 이길여 이신애 이옥주 임용택 정경원 조삼현 조정현 최보원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신의진 최보문 임태식 외과/오세민 주순호 예방의학/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섭 임상병리학/강정옥 문해란 정신과/김광일 김병후 김정일 남정현 박수용 박진생 양창순 유재혁 이혜련 이호석 윤영민 이수경 전지홍 조맹제 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 김영권 김영선 김효선 서은미 이은미 호흡기내과/ 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남영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윤영민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웅숙 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혜란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해건 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강명구 김양희 김훈순 원용진 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국제협력**/김선영 김사라 니콜라 박선미 안연선 이성숙 정경자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변혜정 사회복지학/권진숙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이재경 장필화 조주현 임순영 차옥덕 이경미 김지혜 철학/이상화 정대현 아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선옥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 **소장** 이미경